"너를 잡아야 중위권 도약"…이번주 하위팀 격돌

지난주 3승 3패…저조한 승률에 하위권만 맴맴
이적생 이우성 역전타…앞으로 활약 기대감 상승
삼성·한화전 맞춤형 선발 작전…터너, 마지막 테스트

타이거즈 전망대

KIA 타이거즈가 '위기의 팀'들과 대결에 나선다.

안방에서 한 주를 보냈던 KIA는 3승 3패를 수확했다. 주중 NC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터너, 차명진의 조기 강판 속에 루징 시리즈를 기록한 KIA는 주말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는 양현종·윌랜드의 역투로 연승을 만들었다.

그리고 7일 극적인 역전극도 연출했다. 0-7로 뒤진 5회말 대거 6점을 뽑아내는 데 성공한 KIA는 6회말 대졸 루키 오선우의 데뷔 홈런으로 동점을 만들었고, 7회말 '이적생' 이우성의 역전 적시타 등으로 9-7리드를 잡았다.

LG의 에이스 윌슨과 불펜의 핵심 정우영을 상대로 한 역전이었기에 더 짜릿했다.

그러나 불펜 난조 속 KIA가 마무리 문경찬을 8회 2사 만루에서 조기 출격시켰다. 결과는 정주현의 싹쓸이 2루타였다. 벤치는 시프트를 가동해 야수진을 전진 배치했지만 정주현의 타구가 중견수 키를 넘어갔다.

여기에서 승부가 끝난 것은 아니었다. 9회말 1사에서 최형우가 볼넷으로 출루하면서 마지막 기회를 살렸다. KIA가 대주자 김민식을 투입했고, 상대의 패스트볼과 김선빈의 적시타까지 나왔지만 결과는 허무한 9-10 패배였다.

2사 1·3루 1볼 2스트라이크에서 오선우의 방망이가 헛돌았지만 포수 유강남을 맞은 공이 3루 쪽으로 튀면서 낫아웃 상황이 됐다.

이때 경기의 승패를 바꾼 결정적인 주루가 나왔다. 3루주자 김민식이 멈칫하다가 귀루를 했고, 투수 고우석이 1루로 악송구를 하자 뒤늦게 다시 홈에 쇄도했다. 그러나 착실하게 백업을 들어간 2루수 정주현이 공을 잡아 홈으로 송구했고 김민식은 아웃됐다.

상대의 실수로 기분 좋게 스윕까지 노려볼 수 있던 상황이었지만 벤치의 판단 미스와 김민식의 황당한 주루로 3승 3패로 한 주를 마감했다.

아쉽게 한 주를 마무리한 KIA는 주중 대구로 가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하고 주말에는 안방에서 한화 이글스와 만난다. 마음 같지 않은 시즌을 보내고 있는 7위 삼성, 8위 KIA 그리고 9위 한화다.

■KBO중간순위 (8일 현재)

순	팀명	경기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1	SK	88	59	28	1	0.678	0.0
2	두산	89	53	36	0	0.596	7.0
3	키움	90	53	37	0	0.589	7.5
4	LG	87	49	37	1	0.570	9.5
5	NC	86	42	43	1	0.494	16.0
6	KT	89	42	46	1	0.477	17.5
7	삼성	86	36	49	1	0.424	22.0
8	KIA	88	36	51	1	0.414	23.0
9	한화	86	33	53	0	0.384	25.5
10	롯데	87	31	54	2	0.365	27.0

KIA는 1경기 차로 삼성을 쫓고 있고, 한화는 2.5경기 차 밖에 있다.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서는 KIA가 두 팀에 각각 6승 3패로 앞서 있다.

하위권 경쟁을 하면서 최근 10경기 성적도 좋지 못하다. KIA가 최근 10경기에서 3승 7패에 그쳤고, 삼성이 3승 1무 6패, 한화가 2승 8패다.

KIA는 '맞춤형 선발'로 승률 극대화에 나선다.

앞선 NC전에서 3.2이닝 4실점으로 부진했던 터너가 9일 선발 마지막 테스트를 받는다. 그나마 터너에게는 반가운 상대다. 올 시즌 터너는 NC전 세 경기에서 모두 패전 투수가 됐다. 11.1이닝만 겨우 소화했고, 평균자책점은 11.12에 이른다.

삼성전에서는 7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좋은 기억이 있다.

양현종

윌랜드

터너

KIA는 11일 선발 로테이션에도 변화를 준다. 앞선 삼성 원정에서 2이닝 7실점을 기록하는 등 유독 대구에서 좋지 못했던 양현종의 등판을 12일로 하루 미루고, 대신 윌랜드를 앞당겨 11일에 출격시킨다.

KIA가 선발진 조정으로 전력을 극대화하고 승률 높이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조카야 삼촌 골 넣었다" 여봉훈 유쾌한 신고식

'K리그2' 광주 FC, 안산전 1-0 승
부상 복귀전서 2년만의 결승골
"동료·팬 덕분…마음의 짐 덜었다"

광주FC의 여봉훈에게는 많은 감정이 담긴 '특별한 골'이었다.

광주는 지난 6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9 K리그2 18라운드 안산그리너스와의 경기에서 1-0 승리를 거뒀다.

이와 함께 광주는 18경기 연속 무패에 성공하면서 K리그2 역대 최 다 무패 기록에 타이를 이뤘다. 창단 첫 5연승에도 성공한 이날 주인공은 단연 결승골을 넣은 여봉훈이었다.

이날 광주는 안산의 거친 플레이에 고전을 했다. 특히 상대는 '해결사' 펠리페를 집요하게 괴롭히면서 심리전을 펼쳤다.

광주 선수들이 안산의 거친 방어전략에 흔들리는 모습이었지만, 위기 상황에서 여봉훈은 흐름을 바꾸는 한 방을 날렸다.

펠리페의 패스를 받은 여봉훈이 세 명의 수비수 사이에서 침착하게 공을 한번 접은 뒤 슈팅을 날리며 '0의 균형'을 깼다. 여봉훈의 골로 흐름을 되찾은 광주는 상대 공격을 봉쇄하면서 1-0 승리를 이뤘다.

여봉훈은 지난 2017년 4월 30일에도 K리그 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적이 있다.

이날 여봉훈은 프로데뷔골로 팀의 1-0 승리를 이끌었다. 이날 경기 상대가 '스타군단' 전북현대였기 때문에 대어를 잡은 여봉훈의 첫 골은 더 화제가 됐었다.

지난 시즌 26경기에 출전하기도 했지만 올 시즌에는 속앓이를 많이 했다. 치열해진 내부 경쟁 속 부상까지 겹쳤다. 여봉훈은 지난 5월 15일 수원삼성과의 FA컵 16강전에서 부상을 당하며 자리를 비워야 했다.

그리고 7월 6일 다시 그라운드로 돌아온 여봉훈은 부상 복귀전에서 천금 같은 골을 기록했다. 마음고생을 털어낸 시원한 골이 나온 날, 여봉훈 개인에게도 의미 있는 날이었다.

여봉훈은 골을 넣은 뒤 공을 유니폼 안에 넣고 달렸다.

여봉훈은 "큰 누나가 조카를 임신했는데 오늘 그 소식을 들었다"며 세리모니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동안 마음 졸이며 지켜보던 가족들에게 골 소식을 전한 여봉훈은 동료들의 응원에 보답할 수 있었다는 부분에서도 마음의 짐을 덜어냈다.

광주는 여봉훈이 부상으로 빠진 뒤 치른 첫 경기에서 서울이랜드를 상대로 3-1 승리를 거뒀다. 그리고 이날 선수들은 카메라 앞으로 달려가 손가락으로 숫자 14를 만들었다. 14번은 여봉훈의 백넘버로 빠른 쾌유를 비는 동료들의 각별한 마음이 담긴 세리모니였다.

지난 6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안산그리너스와의 18라운드 경기에서 부상 복귀전을 치른 광주FC의 여봉훈이 전반 44분 골을 넣은 뒤 큰누나를 위한 '임신 축하 세리모니'를 하고 있다. 〈광주 FC 제공〉

여봉훈은 "그때 부상이어서 영상으로 확인했다. 항상 형들이 많이 신 경써주는 것 같아서 더 동기부여가 됐다. 그래서 더 빨리 복귀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웃었다.

또 "제작년 전북전 이후 오랜만에 골 맛을 봤는데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같다. 힘든 시기도 많았는데 골로 만회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며 "팀은 이기는데 저는 계속 뒤처져 있는 것 같았다. 팀은 이겨서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많이 힘든 시기였다. 그래도 뒤에서 묵묵히 준비 열심히 했다. 이렇게 믿어주고 기용해주신 감독님과 팬들에게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퇴장에 발목 잡힌 전남

K리그2 18R 아산전 1-1 무승부

전남드래곤즈가 퇴장 악재 속에 무승부를 기록했다.

전남이 지난 7일 아산 이순신경기장에서 열린 2019 K리그2 18라운드 아산무궁화와의 원정경기에서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선제골을 기록했지만 두 선수의 퇴장 속에 승점 1점을 챙긴 것에 만족해야 했다.

전반 19분 중앙에서 공을 잡은 브루노가 세 명의 수비수에 둘러싸여 상대 진영으로 진입한 뒤 왼발로 슛을 날리면서 아산의 골망을 흔들었다.

하지만 리드는 오래가지 못했다. 전반 27분 아산 고무열의 왼발을 막지 못하고 동점골을 허용했다.

전반 39분에는 돌발변수가 발생했다.

전남 수비수 안셀이 페널티박스로 진입하려던 아산 주세종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면서 퇴장을 당했다. 후반 추가 시간에는 앞서 태클로 경고 카드를 받았던 이유현이 다시 한번 경기 지연으로 경고를 받으면서 그라운드에서 물러났다.

전남은 퇴장 악재 속에 20개의 슈팅(유효 슈팅 11개)을 막고 간신히 무승부를 기록했다.

승점 19가 된 전남은 8위 자리를 유지했고, 아산이 승점 28이 되면서 수원FC(승점 27)를 제치고 3위로 올라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일고·동성고 16강

청룡기 야구대회

광주일고와 광주동성고가 청룡기 16강에 진출했다.

광주일고가 8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제 74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32강전에서 김해고를 3-1로 꺾었다.

1회 광주일고가 선취점을 만들었다. 1사에서 내야안타로 출루한 전광진이 도루와 한지운의 적시타로 홈에 들어왔다.

6이닝을 1실점(비자책)으로 막은 선발 이의리에 이어 이승훈, 정해영이 남은 이닝을 무실점으로 책임졌다.

동성고는 앞선 6일 열린 '신생팀' 우신고와의 경기에서 9-6 진땀승을 거두고 16강을 확정했다.

1회초 동성고 선두타자 고승완이 우전안타와 도루로 2루로 향한 뒤 김현창의 중전안타 때 홈을 밟았다. 하지만 동성고가 2회말 3타자 연속 안타 등으로 1-2 역전을 허용했다. 이후 두 팀의 엎치락뒤치락 하는 승부가 전개됐다.

광주일고는 11일 오후 12시 강릉고와 서울디자인고의 승자가 대결한다. 동성고는 10일 오전 9시30분 '황금사자기 우승팀' 유신고와 8강행을 다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